

Partners ▶ 코오롱사회봉사단



코오롱그룹 신입사원 '드럼팩 기부천사 캠페인'

코오롱그룹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코오롱그룹은 8일 경기 용인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서 '드럼팩 기부천사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코오롱사회봉사단이 국제구호 비정부기구 기아대책과 함께 신학기 용품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행사다. /코오롱그룹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전국 돌며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서울강원지역본부부를 시작으로 21일 까지 전국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연두업무보고회 및 일선 현장 직원들과 사랑방 정담회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연두업무보고는 본부장 및 지사장 등 간부직원들이 참석해 새해 지역본부의 현안사항 및 특화사업 등을 보고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맨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8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장 직원과의 정담회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



신한PWM, 프로골퍼 이정은·김자영 선수와 후원 협약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브랜드인 신한PWM은 8일 서울 중구 신한PWM 서울프리빌리지센터에서 프로골퍼 이정은, 김자영 선수와 브랜드 홍보 및 선수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정은, 김자영 선수는 이번 시즌 동안 신한PWM 로고가 표기된 의류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고, 고객초청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신한 PWM의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정은(6(왼쪽에서 첫번째))과 김자영(세번째) 선수가 신한금융그룹 왕미화 WM부문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중진공, 한중 왕홍 합동 라이브 판매전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한·중 왕홍 합동 Live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 Live 판매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직접 양성한 '한국형 왕홍' 26명과 중국 왕홍 7명이 함께 진행하며, 이틀간 19시~24시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통해 방송된다. 지난해 광군절을 맞아 한국 화장품과 식품 방송판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왕홍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



교원그룹, 광고에 '키즈라운지' 1호점 오픈

교원그룹은 경기 광고에 고객 친화형 체험센터인 'KIDS Lounge'(키즈라운지) 1호점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키즈라운지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독서, 클래스, 에듀테크 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교원그룹

‘정의선의 혁신’ 성공하려면



윤 위 중 의
잠시 심포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현대차그룹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전과 달리 시대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민첩성이 눈에 띈다. 변화에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게 변화를 주도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책임감이 수반되는 '오너 경영'의 결과물이 부쩍 많아졌다. 과감한 투자와 유망기업 인수 등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9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공동출자해 미국 애플티브테크 놀로지스와 40억달러 규모의 자율주행 합작사(JV)를 설립키로 한 것도 오너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현대차그룹의 변화는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가전쇼(CES) 2020'에서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이번 CES 2020에서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비전은 과거 현대차의 관성이나 고정관념으로 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파격과 혁신을 갖췄다. 도심에서 교통체증을 피해 수직이착륙하는 'S-A1'이라는 개인용 비행체(PAV)의 등장도 충격적인데, 지상

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그들을 연결하는 허브(환승거점)을 만드는 구상을 보여줬다. 미래 모빌리티가 도대체 뭔가 하는 막연함을 단번에 해소시켜줬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용 비행체는 그저 모형을 전시한 게 아니라 상용 제품에 가까운 실물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한다.

현대차는 세계 최대 카셰어링 업체인 우버와도 자동차 업계 처음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대차가 PAV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도심항공 부문의 영향력 있는 인물인 미국 항공 우주국(NASA) 신재원 항공연구총괄 본부장을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인비행체를 연구·개발하는 곳이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 유명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현대차만 미래 모빌리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현대차그룹은 국내 제2위 기업이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는 자동차 업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버와는 경쟁사들 보다 먼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발빠름

도 보여줬다. 도요타,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경쟁한 글로벌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 이동수단이란 신시장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혁신은 혼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을 사회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공중에 떠 다니는 비행체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 비행하면 어떻게 하나, 비행 중에 아파트와 충돌하면 누가 책임지나 등등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자율주행차의 운행 사고 발생 책임을 놓고 제조사-보험사-소비자간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비행체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체 사회가 미래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옆나라 일본은 개인비행체의 등장에 대비해 이미 보험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기술은 몰라도 보험은 일본이 앞선 것이다.

보험뿐 아니라 시설물이 들어설 위치, 각종 법과 규제 등등 기술의 혁신에 부응할 '마인드의 혁신'을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롯데월드 어드벤처,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1989년 동전우대’ 행사 기부금 등 백혈병소아암협회에 2000만원 전달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2020년 경자년을 뜻깊게 시작했다.

롯데월드는 지난해 진행한 '1989년 동전우대' 행사 기부금과 임직원이 참여한 '드림업 기부데이' 기부금 등 총 2000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진행한 '드림업 기부데이'는 한 달에 한 번, 사내식당의 반찬 비용을 줄인 '기부메뉴'로 식사한 임직원들의 인원만큼 기금이 마련되는 롯데월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동일한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드림업 기부데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롯데월드

작년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500만원의 기부금이 모여지며 여기에 손님들이 동전우대로 기

부한 500만원을 더해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관세정책관 주태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 전보 △기획조정관 인니 수도권전 협력팀장 최형욱 △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장 홍순민 ◇직위 승진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최병성
- ◆충남지방경찰청 ◇경정 승진 △지방청 정보화장비 송영창 △지방청 112종합상황실 전철표 △논산시 정보보안 유병익 △지방청 과학수사 김경환 ◇경감 승진 △서산시 경무 문제현 △당진서 청문감사관실 교체철 △부여서 정보보안 이종구 △홍성서 경무 김희환 △지방청 정보 김환 △청양서 생활안전교통 윤창훈 △아

산서 보안 허세만 △천안서북서 생활안전 권희석 △천안동남서 경무 정용 △지방청 경비교통 김택환 △예산서 경무 장기섭 △공주서 경비교통 김상운 △지방청 과학수사 김재국 △지방청 경무 김선욱 △지방청 수사 류기운 △금산서 정보보안 홍성천 △지방청 생활안전 이상수 △보령서 경무 이수범 △지방청 형사 강환구 △태안서 정보보안 장세용 △천안서북서 형사 오현숙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광고국 부국장 이종은

부음

▲박상서씨 별세, 배용준(신한금융투자 신한PW WM도곡센터장)씨 장인상=7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02-2258-5940

▲강옥구씨 별세, 김상현(우진메트로 기술실장)·종현(연합뉴스 경제담당 논설위원)·대현(금강래미콘 차장)씨 모친상=8일 충북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43-644-4422

▲전수자씨 별세, 한필상(농구전문 월간지 점프볼 취재팀장)씨 모친상=8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성모장례식장 22호실(9일 21호실로 변경 예정),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58-5940